

# 字符‘亘’의 字形演變과 字書收錄 商榷

韓 延 錫\*

< 목 차 >

1. 序論
2. 字符‘亘’과‘互’의 字書收錄 양상
  - 2.1 독립 字符로 수록
  - 2.2 동일 字符로 수록
3. 字符‘亘’의 생성과 演變
  - 3.1 ‘亘’으로부터의 연변과 분화
  - 3.2 ‘互’으로부터의 연변과 분화
4. 結語

## 1. 序論

현재의 해서체 자형 ‘亘’은 서로 다른 字符 亘(선)과 互(互:궁)<sup>1)</sup>이 同形인 ‘亘’으로 演變된 異字同形이다. 그런데 1900년대 중반 이후 제작된 대부분의 字書들은 이 두 자를 ‘亘’자조에 하나의 字符로 뒤섞어 놓았다. 따라서 字音, 字義, 部首 등의 귀속에 혼란이 일어나고, 이들의 문자 演變過程에서 발생한 異體字 ‘亘(亘), 亘, 互, 互(亘)’ 등에 대한 字源 설명이 자서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字音이 ‘선’ 字義 ‘돌다’는 ‘亘’이 本字이고 ‘互’은 訛體인데 연변과정 중 書寫가 용이한 ‘亘’이 통행되면서 ‘亘’은 도태되었다. 자음 ‘궁’ 자의 ‘半月’은 ‘互’이 本字

이고 ‘互, 互, 互, 互, 互’은 訛體인데, 이들 가운데 ‘互, 互, 互’이 주로 통행되다가 근세에는 ‘互’이 통행되면서 ‘亘’의 異體 ‘互’과 同形이 되었다. 대부분의 자서들은 이러한 연변과정을 알지 못하고 ‘亘’자조에 ‘亘’과 ‘互(互)’의 字義와 字音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두 字符에 대한 혼돈은 우리의 컴퓨터 한자 식자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글 2005 컴퓨터식자에 한글 ‘선’과 ‘궁’을 치고 한자전환키(F9)를 누르면 자형 ‘亘’이 똑같이 보인다. 하지만 ‘선(亘)’은 화면 하단부의 ‘자전보이기(V)’에는 자형이 ‘互’, 자음은 ‘궁’으로 표기되어 나온다. 심지어 한글 ‘선’을 치고 한자전환키를 누르면 화면에 글꼴 ‘互’이 나올 때도 있다. 이는 자서나 컴퓨터가 이 두 자를 혼동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본고는 ‘亘’과 ‘互’의 자형연변과 자서 수록 양상을 고찰하여 ‘亘’의 字源을 규명하고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자서 편찬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 2. 字符‘亘’과‘互’의 字書收錄 양상

許慎의 《說文解字》로부터 20세기 초 발간된 字書들까지는 字義 ‘돌다’ 字音 ‘선’의 ‘亘(亘)’이나, 자의 ‘半月’ 字音 ‘궁’의 ‘互’을 독립된 자부로 인식하고, 字頭를 ‘亘(亘)’과 ‘互’으로 따로 배치하였다.<sup>2)</sup> 하지만 근간에 출간된 자서류에는 이들을 하나의 자부 ‘亘’으로 뭉뚱그려 놓았다.

\* 延壽女子高等學校 教師.

1) 互은 갑골문에서 互으로 썼다. 이를 隸定하면 互이지만 대부분 互, 互으로 쓴다. 亘은 《集韻》에 반절을 ‘荀緣切’, 互은 《正字通》에서 ‘居鄧切’이라고 하였다. 이하 字音表記는 반절을 동반한 경우 반절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국 한자음대로 표기한다.

2) 정확히 어느 시점, 어느 자서까지 독립된 자부로 인식하고, 혼동하기 시작하였는지를 찾기란 쉽지 않다. 자서는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 한자문화권에서 부단히 출간되었기 때문에 모든 자서를 수집 조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1 독립 字符로 수록

《說文解字》로부터 1900년대 초 발간된 《中華大字典》까지 '亘'과 '亘'을 個別 字符로 인식한 字書 6종을 분석하였다.

사전	字頭							
《說文解字》	亘			(亘)			𠄎	(𠄎)
자음	선 (須緣切)			궁 (古鄧切)			홍 (胡登切)	
비고	亘			楯고문			楯, 楯	楯 고문
《玉篇》	亘 <sup>3)</sup>				恒	恒	恒	𠄎
자음	선 (思緣切)				홍 (胡登切)	홍 (何登切)	홍 (何登切)	
비고	同宣				古作楯	字義 常	同恒	恒 고문
《字彙》		亘		亘	恒	恒	恒	𠄎
자음		선 (息緣切)		궁 (居鄧切)			형 (何庚切)	
비고					俗恒	恒同	恒의 정체	古文 恒
《正字通》	亘	亘	亘	亘	恒	恒	恒	𠄎
자음				궁 (居鄧切)			홍 (何能切)	
비고	宣본자	亘의 訛體		同亘, 亘	恒의 속자	同恒		恒 고문
《康熙字典》	亘	亘	亘	亘	恒	恒	恒	𠄎
자음		선 (荀緣切)	궁 (古鄧切)				홍 (胡登切)	
비고	亘본자			同亘	恒의 속자		고문 𠄎, 楯	고문 恒
《中華大字典》	亘	亘	亘	亘	恒	恒	恒	
자음	선 (荀緣切)	환 (胡官切)	궁 (居鄧切)		홍 (胡登切)		궁 (古鄧切)	
비고	本字亘	同恒	本作亘	亘本字	字頭 別設		字頭 別設	

위 표를 보면 《說文》에는 '亘(亘)'과 '楯(恒)'<sup>4)</sup> 두 자만 독립된 字頭로 설정되고, '亘'과 '楯'은 각각 '楯'과 '楯(恒)'의 고문으로 제시되었다. 말하자면 《說文》에는 자부 '亘'과 '恒'만 자두로 제시된 셈이다. 《玉篇》에는 亘, 恒(恒의 이체)<sup>5)</sup>, 楯(恒), 𠄎(恒의 고문), 恒이 보인다. 즉 이곳에도 아직 亘의 와체 '亘'과 亘의 와체 '亘'은 자두로 설정되지 않았다. 《字彙》에는 亘(선), 亘(궁), 楯, 恒, 恒이 등재되었다. 앞의 사전들과 달리 '亘'의 와체 '亘(궁)'과 亘의 와체 '亘'을 정식 자두로 등재하고 亘을 퇴출시켰다. 《正字通》에는 同字인 '亘'과 '亘', '亘'과 '亘'을 각각 독립된 자두로 설정하고 '恒'과 속체인 '恒'을 동시에 소개하였다. 《字彙》에서 퇴출시킨 '亘'과 '亘(亘)'의 訛體 '亘'을 동시에 등재하여 《字彙》에 비해 자두가 2개 더 붙어났다.<sup>6)</sup> 《康熙字典》은 《正字通》과 대동소이하다.

이상의 사전들을 살펴보면 《說文》에서 자두로 설정된 '亘(亘)'과 '楯(恒)'은 《字彙》와 《正字通》에 이르러 '亘, 亘'과 '恒, 恒, 恒'으로 각각 분화됐다. 또, 楯의 고문 '亘'으로부터 자형 '亘, 亘, 亘'이 분화됐으며, 恒(楯)의 고문 𠄎 역시 독립된 자부 '𠄎'으로 분화됐다. 이들은 크게 자음 '선'계통의 '亘, 亘', '궁'계통의 '亘, 亘, 亘', '항'계통의 '恒(恒, 恒), 恒, 恒' 등으로 분화되었는데 아직 '선'계통의 '亘(亘)'과 '궁'계통의 '亘, 亘, 亘'이 자형 '亘'으로 착종되지 않았다. 이는 1900년대 초 출간된 《中華大字典》<sup>7)</sup>까지도 유지되어 '亘, 亘'과 '亘'은 별개의 자두로 설정되었다.

3) 字頭는 자형 '亘'를 제시하였다. 소전체 '亘'를 문자 연변에 맞게 예정한 것이다.  
 4) 恒의 소전체 楯를 隸定한 것이다. 현재는 恒으로 쓴다.  
 5) 《中華字海·亘部》는 '恒'에 대해 "宋 眞宗을 피휘 하기 위해 아래 한 획을 缺筆하였다. 글자는 《集韻》에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集韻·澄韻》 '亘'자조에는 '상현달이다(月弦也)'라고만 하고, '恒, 恒, 恒'(登韻)조에 "반절은 홍(胡登切), 황제의 이름자이다.(胡登切, 國諱)"라고 하였다. '恒'은 600년대 成書된 《玉篇》에 이미 보이므로 宋 眞宗(960-1279)을 피휘 하기 위해 結筆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6) 《說文》에서 楯의 고문이라 한 '亘'은 《字彙》에서 정식으로 자두 '亘'으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正字通》은 이를 '亘'으로 쓰고 '亘'의 訛體라고 하고, '亘'을 새로운 자두로 설정하였다. 정체 '亘'은 '亘'의 부건 '夕'의 중앙 斜線(ノ)의 방향과 길이를 조금 다르게 쓴 것이다. 후대 자서들은 《正字通》을 본받아 '亘'과 '亘'를 각각 자두로 설정하되 사전마다 사선의 길이, 기울기를 다르게 쓰고는 이들을 同字, 혹은 異字로 인식하였다.  
 7) 본 사전은 1978년에 제1권이 출간 되었지만 1915년도 출판 본을 저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직 亘과 亘(亘)을 동일 자부로 혼동하지 않았다. 《中華大字典》은 또, '亘'을 배제하고 訛體 '亘(선)'을 등재하는 대신, 동형인 자음 '환' 자의 '國名'인 '亘'을 별개의 자두로 수록하였다. '恒' 역시 '亘(선)'과 '亘(환)'같은 이유로 자음 '궁'과 '항'조에 각각 자형 恒의 독립된 자두로 설정하였다.

2.2 동일 字符로 수록

대략 1950년대를 전후해 출간된 자서들부터 '亘(亘)'과 '互(互)'을 자부 '亘'으로 통합 서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亘(亘)'과 '互(互)'을 통합 자부로 인식한 《大漢和辭典》부터 《漢語大字典》까지 5종을 분석하였다.

사전	字頭								
《大漢和辭典》	亘	亘	亘	互	互	恒	恒	恒(恒)	亘
자음		①선 (荀緣切) ②환 (胡官切) ③궁 (居鄧切)		궁		①홍 (胡登切) ②궁 (居曾切) ③궁 (居鄧切)			
비고	亘①② 본자		同亘 ①	亘의 본자	同互		恒 이체	恒 본자	恒 古字
《中文大辭典》	亘	亘	亘		互	恒	恒	恒	亘
자음		①선 (荀緣切) ②환 (胡官切) ③궁 (居鄧切)						①홍 (胡登切) ②궁 (居曾切) ③궁 (居鄧切)	
비고	亘 본자		同亘		同互			恒의 정체	古亘字
《漢語大詞典》	亘	亘			互	恒		恒	亘
자음		①선 (荀緣切) ②궁 (居鄧切) ③환 (胡官切)						①홍 (胡登切) ②궁 (居鄧切)	

비고	同亘①				同亘②	同互		
《辭源》		亘			互	恒		恒
자음		①선 (荀緣切) ②궁 (古鄧切)			건 (gen)			①홍 (胡登切) ②궁 (居鄧切)
비고		通互			段借亘	同互		
《漢語大字典》	亘	亘		互	互	恒	恒	恒
자음		①선 (荀緣切) ②궁 (古鄧切)		궁 (居鄧切)	궁 (居鄧切)			①홍 (胡登切) ②궁 (居鄧切)
비고	同亘			同亘	同互	同互	同互	亘과 통 同互

앞의 《說文》에서 《中華大字典》<sup>8)</sup>까지의 사전들과 자형, 이체자 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두드러진 특징은 康熙字典類가 자음 '선'계통의 '亘, 亘'과 '궁'계통의 '互, 互'를 명확히 서로 다른 字符로 분리 서술한 반면, 위 사전들은 이들을 '亘'이란 자형 하나에 혼합해 놓았다. 康熙字典類처럼 字頭로 亘, 亘, 互, 互 등을 독립하여 설정은 해놓았지만, '亘과 同' '亘의 本字' 등으로 처리하고 字音과 字義를 대부분 '亘'자조에 몰아서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자음은 '① 선 ② 환 ③ 궁'으로 제시하고, 자의는 자음 ①은 '선회하다', ②는 '國名', ③은 '두루 미치다'를 제시하여 '亘'과 '互'를 자부 '亘'으로 통합 설명하고 있다.

《大漢和辭典》은 亘, 亘, 互, 互 등을 독립된 자부로 설정은 해놓았지만, 亘, 互, 互 등은 '某의 本字', '某와 同' 등으로 처리하고 자음과 자의는 모두 '亘'자조에서 설명하고 있다. 전혀 다른 자부를 하나로 통합하다보니 자원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古, 今文字形이 일치하지 않기도 한다. 예컨대 古文字形으로 제시한 亘(亘(亘), 亘(恒), 互(互) 가운데 亘(亘: 선)은 나머지 恒, 互과 字源이 완전히 다른데도 동일한 자부에 배치하는 오류를 범했다. 특히 同形 同字인 亘과 亘을 독립된 字頭로 설정한 것은 대표적 오류이다. 《中文大辭典》은 《大漢和辭

8) 이하 서술의 편의상 이들 사전들을 康熙字典類로 약칭한다.

典》의 亘과 亘을 독립된 자두로 설정한 오류를 그대로 따랐고, 《大漢和辭典》과 동일하게 자형 '亘'에 자부 '亘(亘)', 'ㄱ, 亘'의 자음, 자의를 통합해 놓았다. 단 다른 점은 자형 '亘'자조에는 古, 今文字形으로 '亘, 亘, 亘, 亘, 亘, 亘'를, '亘'자조에는 古, 今文字形으로 '亘, 亘, 亘, 亘, 亘, 亘' 등을 나누어 제시하여 《大漢和辭典》을 극복한 모습이지만 여기서도 모순이 발견된다. '亘(亘)'자조의 네 번째 '亘'는 '亘(亘: 선)'이 아닌 '亘(공)'의 고문자로 자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 또, 자두를 亘과 亘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였으면 거기에 맞춰 古, 今文字形을 배치하고 자원을 설명해야 하는데, 자부 'ㄱ, 亘'인 '亘, 亘, 亘, 亘'과 '亘'인 '亘, 亘'을 亘자조에 한데 뒤섞어 놓았다. 이는 隸變 이후 訛變된 자형을 기준으로 釋字를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혼동이다. 이하 《漢語大詞典》과 《漢語大字典》은 亘과 亘을 독립된 자부로 설정하는 과오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기타 방면에서는 위 자전들과 대동소이하다. 《詞源》은 아예 자두로 '亘'을 설정하지 않았다.

위 자전들이 亘, 亘, 亘, 亘 등을 독립 자두로 설정하고도 字音과 字義를 대부분 '亘'자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亘(亘), 亘, 亘 등이 도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현대 중국어 사전에는 자형 '亘, 亘, 亘'은 보이지 않고 '亘'만 남아 있고, 또 남겨진 '亘'도 亘(선)의 詞音과 詞義는 반영하지 않고 '亘'만 반영하고 있다. 즉, 亘(亘: 선)은 詞形, 詞音, 詞義가 완전 도태되고, 亘(亘)은 詞形만 도태되고 詞音, 詞義는 '亘'자조에 保留시키는 추세에 있다. 《現代漢語詞典》<sup>9)</sup>은 자부 '亘(亘)'의 음으로 'gen', 詞義는 '延續不斷'을 제시하였다. 현대한어에서 자부 '亘'이 古漢語 '亘'의 음과 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다. 자부 '亘'은 亘(선)과 亘(공)'의 訛變體이지만, 자형연변을 참고한다면 亘이 亘보다 훨씬 일찍 '亘'으로 썼다. 亘은 최소한 西漢 초부터 '亘'으로 訛變되었다.<sup>10)</sup> 하지만 '亘(공)'은 분화자 '亘'의 사용으로 거의 폐기되다시피 하다가 대략 위진 이후에나 독립된 자부로 사용되었다.<sup>11)</sup>

### 3. 字符 '亘'의 생성과 演變

#### 3.1 '亘'으로부터의 연변과 분화

##### 3.1.1 亘으로부터의 연변

갑골문에 ㉑ 亘(甲903水名亘水泉), ㉒ 亘(甲3339), ㉓ 亘(前3.33.3), ㉔ 亘(鐵247.1), ㉕ 亘(乙6722), ㉖ 亘(鐵220.1)<sup>12)</sup> 등의 자형이 보인다. 이들을 소전 '亘'을 기준으로 隸定하면 '亘'으로 해야 한다.

'亘'의 본의는 '돌다'이다. 《說文·二部》에 "亘은 '돌다'이다. 二와 回로 구성됐다. 回는 回의 고문으로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위아래로 사물을 구하는 것이다."<sup>13)</sup>라고 하였다. 二와 回로 구성됐고, '돌다'라는 의를 나타낸다고 한 것은 믿을 만하다. 하지만 '二'는 '위아래'를 나타내지 않고 언덕을 표시한다. 楊樹達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亘은 澗의 초문이다. 澗은 《說文·水部》에 이르기를 "물이 맴도는 샘이다. 水가 의미를, 旋이 소리를 나타내는데 생략한 형체이다."라고 하였는데 요즈음은 '澗'으로 쓴다. 亘의 중간 部件 日은 回로부터 演變된 것으로, 回는 回의 고문이다. 亘의 자형은 돌고 있는 물을 그린 것이다. 亘의 形과 義는 澗의 '물이 돌고 있는 샘'과 합치된다. 亘과 澗의 음 또한 韻은 모두 寒部에 속하고 聲은 心母에 해당하여 서로 가깝다. 亘이 '二'를 따른 것에 대해 허신은 '구하는 바의 사물'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나는 이것이 '언뜻의 좌우 언덕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한다.<sup>14)</sup>

11) 《正字通》 亘자조 : "지금 예서에서 舟를 日로 쓴다.(今隸書轉舟爲日)" "지금 시경에서 亘으로 고쳐 쓴다.(今引詩改作亘)"라고 한 것으로 보아 대략 위진 이후에는 亘의 訛體 '亘'이 사용된 듯하다.

1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1965, 9, 第1版), 1992, 2, 4차 인쇄

13) 《說文·二部》: "亘, 求亘也. 從二從回, 回古文回, 象亘回形, 上下所求物也"

14) 楊樹達, 《積微居小學述林》: "亘者, 澗之初文也. 水部云, '澗, 回泉也. 從水旋省聲.' 今字皆作澗. 亘從回, 爲古文回, 字象回水, 是形義與澗爲回泉者合也. 二字之音皆在寒部心母, 又相近

9) 中國社會科學院言語研究所詞典編輯室編, 商務印書館, 2002, 5, 修訂 第3版.

10) 漢帛書에 이미 '亘'으로 썼다.(陳建貢, 徐敏 編, 《簡牘帛書字典》, 上海辭書出版社(1991, 12, 1판 참조)

양수달의 주장이 수긍할 만하다. 위 갑골문 자형 ㉑-㉒의 하부는 ㉑의 하부 곡선을 곧게 펴 쓴 것으로 자형상 대동소이하다. 이들은 물이 돌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㉑-㉒는 글자의 상부에 언덕을 나타내는 '一'을 한 개 더 첨가하였다. 위 갑골문 자형을 대부분 자전은 '回'으로 隸定하지만 정확한 예정이 아니다. 자형만 참고한다면 ㉑-㉒는 '回', '回'로, ㉑-㉒는 回로 해야 할 것이다.<sup>15)</sup> 단 갑골문단계에서는 '回'가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回로 예정해야 한다.

금문단계에서 '回'은 ㉑ 𠄎(曾侯乙鐘, 巨鐘), ㉒ 𠄏(洹子孟姜壺 '回'의 부건), ㉓ 𠄐(曾子仲 巨鼎), ㉔ 𠄑(伯喜父簋 '回'의 부건)<sup>16)</sup> 등으로 썼다. 소전체 '回'와 약간 다른 모습인데, ㉑의 𠄎는 소전체 '回'의 상하의 '二'를 왼쪽에 필획을 덧붙여 이어 쓰고, 또 필획 '一'을 가운데에 첨가하여 회전체를 상하 두 개로 나누었다. 남방 楚系 문자의 특징인 필획의 첨가와 미술화의 경향으로 형성된 것이다. ㉒의 𠄏는 ㉑에서 '二'를 제거한 '回'와 대동소이하다. ㉓의 '𠄐'은 ㉒의 중앙에 위치한 필획 '一'을 아래에 쓴 것이다. ㉔의 '𠄑'는 앞의 자형을 간화시킨 것이다. 전체적으로 갑골문보다는 자형이 복잡해졌지만 본의 '돌다'를 나타내는 筆意는 살아있다. 즉 갑골문 ㉑, ㉒, ㉓ 등이 보유한 회전체의 형상과 상부에 첨가된 '一'의 흔적이 변형된 채로 간직되고 있다.

소전단계에서는 '回'로 썼고, 고문은 '回'로 썼다. 소전체 '回'는 미술화 된 금문을 쫓지 않고 갑골문을 따라 연변된 것이다. 갑골문 ㉑-㉒는 상부에 돌고 있는 물을 감싸고 있는 가로획 하나가 있다. '回'는 갑골문 ㉑-㉒의 형체를 그대로 계승하되 하부에 '一'을 하나 더 그어 양쪽 언덕을 나타내었다. 이는 한자의 연변에서 추구하는 정형미와 균형미를 달성하고, 동시에 '돌다'라는 본의의 文字理據를 강화시켜 준다. '回'의 중간 부건 '回'는 갑골문 자형 ㉑, ㉒ 등을 따라 연변한 것으로, 《說文》에서 고문이라고 한 '回'와 동일한 모양이다. 隸書 단계에서는 ㉑ 𠄎(睡虎地秦簡13, 155), ㉒ 𠄏(春秋事語42), ㉓ 𠄐(趙君碑)<sup>17)</sup>

也。其從二許君說爲所求物者，余謂猶鼎之左右象岸者也。”

15) 하부에 '一'이 없으므로 '回'로 예정해야 정확하겠지만 '回'는 일반 자서나 자료 등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전을 참고하여 回로 해야 한다.

16) 이상은 《金文編》에서 채록하였다.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85, 7, 제1판)

로 썼다. 이미 중앙의 회전체가 '日'로 와변되었다. 예서가 추구한 간화의 결과이다.

### 3.1.2 분화자 回의 생성

《說文·口部》에 “回는 '돌다'이다. 口가 뜻을 나타내는데, 가운데 口는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반절은 회(戶灰切)이다. 回는 고문이다.”<sup>18)</sup> 라고 하였다. 허신은 回가 回의 고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위 갑골문 ㉑, ㉒의 연변임이 뚜렷하고 回(回)의 부건 回와 같다. 허신은 回와 回를 서로 다른 字符로 인식하였지만 回의 '돌다'와 回(回)의 '구하기 위해 돈다'는 字義 상 차이가 없다. 回는 回에 비해 '二'만 더 첨가되었다.

《甲骨文編》은 위 갑골문 자형 ㉑-㉒를 '回'으로 隸定하였다. 同書에는 '回' 자조가 없다.<sup>19)</sup> 《甲骨金文字典》은 回와 回를 각각 분리 제시하였지만 두 자는 同字라고 하였다. 同書는 '回'자조에서 갑골문 자형으로 '回', '回'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갑골문은 물이 계속 뱅뱅 돌고 있는 모양을 그린 것이다. 《說文》의 回자의 소전 모양과 대략 같다. 또 《說文》에 回자의 고문을 '回'로 썼는데 갑골문의 '回', '回'와 모양이 대략 같다. 《說文·口部》에 '回는 돌다.'라고 하였는데 그 뜻이 갑골문 '回', '回'와 같고 모양도 합치된다. 그렇기 때문에 回와 回은 처음에는 같은 자이었다.<sup>20)</sup>

이는 갑골문 단계에서는 '回'가 아직 분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필자 역시 소전 이전 단계, 특히 갑골문단계에서는 回과 回가 同字이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sup>21)</sup> 금문단계에서부터 回와 回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고, 완전히 분화된

17) ㉑는 《睡虎地秦簡文字編》(張守中 撰集, 文物出版社, 1994, 2), ㉒, ㉓는 《秦漢魏晉篆隸字形表》(方述鑫 等編, 四川辭書出版社(成都), 1985, 8, 제1판)에서 채록 하였다.

18) 《說文·二部》: “回, 轉也。從口中象回轉形。戶灰切。回, 古文”

1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中華書局(1965, 9, 第1版), 1992, 2, 4차 인쇄 참조.

20) 方述鑫 等編, 앞의 책, 1039쪽: “甲骨文象水中漩渦回轉盤旋之形, 與《說文》回字篆文略同。又《說文》回字古文作回, 與回, 回略同。且《說文·口部》: 「回, 轉也。」義與回, 回形合。故回, 回初爲一字。”

것은 소전단계인 듯하다. 이는 위 《甲骨文編》은 '亘'자 조만 있고, 回자조가 설정되지 않았고, 《甲骨金文字典》과 《金文編》은 亘과 回를 서로 다른 자로 분리 제시한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金文編》에서는 '𠄎'은 '亘'으로, 22) '𠄎(回父丁爵)'은 '回'로 분리 제시하였는데, 제시된 두 자의 자형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자부임을 알 수 있다.

### 3.2 '亘'으로부터의 연변과 분화

#### 3.2.1 자부 '亘'계통의 이체와 그 字源에 관한 설

楷書 '亘'은 갑골문 '𠄎'으로부터 연변 되었는데, 적어도 남북조 이전부터 '亘(극)'으로 와변되기 시작하여 현재의 통행체가 되었다. 23) '亘'은 완전히 도태되지 않고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서에 등재되는 정도이고, 자신의 역할은 완전히 '亘'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자형은 남아 있지만 자신의 지위를 '亘'에게 양도하고 퇴출되는 과정에 있다. 자부 '亘'은 현재의 통용체 '亘'외에도 '𠄎, 𠄎, 𠄎, 𠄎, 𠄎' 등의 이체가 있다. '亘'은 갑골문이나 금문 등에서 國名, 人名으로 사용되어 본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자형연변과정 중 출현한 위 이체들에 대해 이들이 동자인지, 어느 것이 정체인지, 부건 '勿', '舟', '令' 등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설이 분분하다. 후대 자서들의 논쟁은 크게 《正字通》 계통과 《康熙字典》 계통으로 나뉘볼 수 있다.

《康熙字典·二部》은 '𠄎'은 “二와 舟로 구성됐는데, 지금 와변하여 日을 따라 '亘'으로 쓰고 있다. 이는 잘못이다.” 24)라고 하고, '𠄎'은 “二와 舟로 이루어

21)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 2224쪽: “(𠄎은) 당연히 '亘'으로 釋讀해야 한다. 亘과 回는 실은 본래 같은 자이었으나 후에 분화되었다.(按字當釋亘, 回實本一字, 後始分化)”라고 하였다.(中華書局, 北京, 1996, 5. 제1판)  
 22)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1985, 7, 1판), 1992, 3, 3차 인쇄, 881쪽  
 23) 顏之推, 《顏氏家訓·書證》: “지금 예서에서는 '舟'가 변하여 '日'로 쓴다.(今之隸書轉舟爲日)”고 하였다. 顏之推는 北齊人(531-602)이니 그의 말을 참고하면 부건이 '月'이 됐던 '舟'가 됐던 적어도 1500년 이전에 이미 '日'로 와변 되었다.

졌다. 지금은 '舟'를 '月'로 바꿔 𠄎으로 쓴다.” 25)라고 하여 '𠄎'과 '𠄎'은 동자이며, 중앙 부건은 '舟'라고 하였다. 다만 '𠄎'의 중앙부건 '舟'를 日로 訛變시켜 '亘'으로 쓰고, 𠄎은 舟를 月로 와변시킨 모양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𠄎', '亘', '𠄎'은 동자 이체라는 것이다.

하지만 《正字通》은 𠄎을 “亘자의 訛體” 26)라고 하고, 𠄎은 “月과 二로 이루어졌다. 篆文에는 𠄎, 𠄎로 썼다.” 27)라고 하였다. 또, '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亘은 舟로 구성되어 亘이 日을 따른 것과는 다르다는 것만 알고, 𠄎은 본래 𠄎로 써서 二와 舟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 이것이 正韻의 잘못이다. 28)

즉, 《正字通》은 《正韻》에서 “亘의 중간 月은 舟로 𠄎가 본자이고, 이것이 와변되어 𠄎(亘)로 쓴다”고 한 주장에 대해, 𠄎은 본래 𠄎로 썼고, 중앙의 부건도 '月'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의 자전까지 혼란을 겪게 한 원인의 시발점은 허신의 《說文解字》에 소개된 '𠄎' 때문임을 암시한다.

(𠄎은) 小篆에는 舟를 따라 𠄎로 썼다. 說文에 樞(𠄎)을 木部에 넣어, 옛 주석들이 서로 뒤섞이게 되었다. 《正譌》는 二와 舟를 따랐다고 하고, 說文의 자의는 '다하다'이고, 배가 양쪽 언덕에 다다름을 그렸다'를 인용하였는데 옳지 않다. 《正韻》의 '亘'의 주에서도 또한 '樞'이라고 하고, 우측 부건이 舟를 따랐는데 지금은 月로 쓴다고 한 것은, 舟를 따른 것은 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舊本에는 𠄎이 없다. 29)

24) 《康熙字典·二部》: “又𠄎從二從舟, 今譌從日作亘, 非”  
 25) 《康熙字典·二部》: “𠄎從二從舟”  
 26) 《正字通·二部》: “亘字之譌”  
 27) 《正字通·二部》: “從月從二, 篆文作 𠄎, 𠄎”  
 28) 《正字通·二部》: “知亘從日與亘從舟別, 不知亘本作回非從二從日, 知亘從舟與亘從日別, 不知回本作亘非從二從舟, 此正韻之誤也.” 본 내용은 《正韻》에서 “亘은 二와 日로 이루어져 𠄎과는 같지 않다. 𠄎은 二와 舟로 구성됐는데, 지금은 舟대신 月로 쓰고 있다. ((亘)從二從日, 與𠄎字不同, 𠄎從二從舟, 今從月)”라고 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正字通·二部》, 亘자조)  
 29) 《正字通·二部》: “亘字之譌, 小篆從舟作𠄎, 說文樞入木部, 舊註泥, 正譌從二從舟, 引說文,

《正字通》은 𠄎과 亘은 同字이며, 이들의 중앙 부건은 '月'이고, 《說文》에 柅의 고문이라고 한 𠄎은 본래 '從月'의 字符인데 '從舟'로 訛變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대 주석가들은 거꾸로 '從舟'의 자부가 '從月'로 와변되었다고 釋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𠄎(𠄎)'은 '亘'이 정자이고, 訛變體가 '𠄎'이기 때문에 결국은 𠄎, 𠄎, 𠄎, 𠄎, 𠄎은 동자라는 것이다. 《正字通》은 亘의 본의는 '半月'이라고 한다.

반절은 𠄎(居鄧切)인데, 𠄎과 같은 소리이다. 자의는 半月이다. 半月 중 상현은 음력 7-8일에 동근 부분이 동쪽으로 향하고, 하현은 음력 23-24일에 동근 부분이 서쪽으로 향한다. 가차의로 마치다, 다하다, 두루하다가 있고, 증운에는 연장하다, 시경에는 '달이 점점 차오른다.'란 뜻의 '𠄎'을 잘못하여 '心'을 덧붙여 '恒(恒)'으로 썼고 또, 성으로도 쓰는데, 漢나라의 盧江縣의 丞 '互寬'이 그 성으로 쓴 예이다. 글자는 月과 二로 구성됐다.<sup>30)</sup>

후대 자전들은 대부분 《康熙字典》의 주장에 동조한다.<sup>31)</sup> 하지만 근세 출된 楚簡文字資料를 보면 《正字通》의 견해가 옳다.

𠄎은 갑골문에 𠄎, 금문 𠄎, 소전 𠄎, 𠄎의 고문 𠄎으로 썼다. 이들을 비교해보면, 소전체 𠄎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月'을 따랐다. 또, 楚簡을 보면 소전체가 訛變임을 알 수 있다. 허신이 𠄎의 고문이라고 한 𠄎은 실은 초나라 문자이다. 楚簡帛文字 중에 𠄎, 𠄎, 𠄎, 𠄎<sup>32)</sup>와 같은 자형이 상당수 보인다. 이들은 繁簡의 차이만 있지 동일한 문자이다. 𠄎은 기본적으로 갑골문 𠄎, 금문 𠄎에 裝飾筆 '卜'을 덧붙인 것으로<sup>33)</sup> 𠄎으로 예정 할 수 있다. 𠄎, 𠄎, 𠄎은 '𠄎'

혹은 '𠄎'로 隸定 할 수 있다.(하부 𠄎, 𠄎, 𠄎 등은 楚係文字의 '心'임) 秦系文字가 좌우결구의 𠄎(恒)인데 반해 상하결구로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자형이 包山楚簡에만 25례가 보이는데, 모두 部件 '𠄎(月)'을 따랐다.<sup>34)</sup> 이를 참고한다면 '𠄎, 𠄎, 恒(恒)' 등에서의 '𠄎, 𠄎, 𠄎' 등은 모두 부건 '月'임을 알 수 있다. 訛體 '亘'은 𠄎의 構件 '月'이 '日'로 와변된 것이다. 연변과정은, 《龍龕手鑑》에 𠄎(亘)을 '亘'으로 쓴 예가 보인다. 중앙의 構件 '日'이 해서체 '月'로 轉移되기 전의 隸體로 '日'의 양쪽 豎劃을 짧게 쓴 것이 '亘'이다.

### 3.2.2 '亘'으로부터의 연변

'亘(亘)'은 갑골문에서 ① 𠄎(後上9.10), ② 𠄎(粹78A), ③ 𠄎(前7.11.2) 등으로 썼다. ①과 ②는 동일한 구조인데 글자의 방향만 다르다. ③은 ①, ②와 동일한 글꼴 𠄎에 부건 '𠄎(弓)'을 덧붙인 모양이다. 즉 부건 '弓'으로 𠄎를 감싼 모양이다. ①과 ②가 정체이고, ③은 변체이다. 현재의 해서 亘는 ①과 ②로부터 演變된 것이다. 갑골문 𠄎는 상하의 '二'와 중앙의 '𠄎(月)'로 이루어졌다. 금문에서는 이들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𠄎로 혹은 部件 '心'이 첨가되어 '𠄎', '𠄎'로 썼다. 갑골문의 부건 '𠄎'가 상하로 길게 뻗은 자형인데 반해 금문의 𠄎은 좌우로 넓어졌고, 가운데에 '점'이 하나 더 추가된 모습이다. 이 점은 '𠄎'이 '月'로 연변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자변이의 하나이다. 또, 상하에 있는 '二'는 길이가 약간 짧아진 것 외에는 갑골문과 같다. 갑골문과 금문의 중앙에 있는 構件 '𠄎', '𠄎'는 '月(夕)'이기 때문에 이들을 隸定하면 '亘'과 같이 할 수 있다.<sup>35)</sup> 갑골문 𠄎이 정상적인 예변을 하였다면 '亘'이 정체이다.<sup>36)</sup> 그런데 언제부터인

관한 부호)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글자의 형태미를 추구하였다.(進入春秋以後, 書寫者便通過附加形體(與字音, 字義無關的符號)來追求字的形態美)"(河北大學出版社, 1993, 6, 1판, 83쪽)라고 하였다.

34) 張守中 撰集, 《包山楚簡文字編》, 文物出版社, 1996, 8, 1판, 200쪽 참조.

35) 갑골문 𠄎는 '𠄎(𠄎)'로 예정 할 수 있다.

36) 일반 자서에 '亘'과 같은 자형이 통행 되지는 않았다. 《正字通》에 이와 비슷한 亘이 字頭로 배치됐지만, 정상적인 문자연변을 거치면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金文編》의

竟也, 象舟竟兩岸, 非. 正韻互註亦作柅, 中從舟, 今從月, 不知從舟非互義, 舊本闕互

30) 《正字通·二部》: "互, 居鄧切, 音月弦也. 上弦初七八向東, 下弦二十三向西, 借竟也, 柅也, 徧也, 增韻延袤也, 詩如月之互, 譌加心作恒, 又姓, 漢盧江丞互寬, 從月從二"

31) 《字貫·辨似》에 "互은 舟로 구성됐다. (互, 從舟): "互은 𠄎과 같다. 상현달이다. (互, 同互, 月弦也)"라 하고 또, <檢具>란에 "互은 亘의 본자이다. (互, 亘本字)": "互은 𠄎과 같다. (互, 同互)"라고 하였다. 《大漢和辭典》은 "康熙字典에서 互은 說文 亘의 본자이다. (《康熙字典》互, 說文亘本字)"라고 하고 또, "康熙字典에서 互은 지금 부건을 '日'로 잘못 쓴다. (《康熙字典》互, 今譌從日作互)"라고 하였다."고 했다.

32) 滕壬生 編著, 《楚系簡帛文字編》, 湖北教育出版社(武漢), 1995, 7, 제1판, 960-961쪽 참조.

33) 趙平安, 《隸變研究》: "춘추이후에 진입하여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형체(자음, 자의와 무

가 '亘'의 중앙 부건 月을 옆으로 살짝 뒤틀어 '亘'으로 썼고, 이것이 통행체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자서에는 자두로 '亘'이 아닌 '亘'을 설정하였다.<sup>37)</sup>

대략 1900년대 이후 출판된 자서부터 '亘'을 와체인 '亘'으로 등재하였다. 단 '亘'이 1900년대 이후 자서에 정식 자두로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생성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졌다. 《正字通》, 《康熙字典》에 '俗'에서 '亘'으로 쓴다고 하였고, 《群經正字》도 "(亘은) '가로로 관통하다'고 할 때의 '樞'자이다. 현재 쓰고 있는 '亘'은 '樞'의 고문인 '𠄎'을 따른 것인데 다시 간략하게 '亘'으로 쓴다"<sup>38)</sup>고 하였다. 또, 顏之推의 《顏氏家訓·書證》에도 "'亘'는 '두루 미치다'라고 할 때의 '亘'이다. 글자는 '二' 사이에 부건 '舟'를 쓴 모습이다. 지금 예서에서는 '舟'가 변하여 '日'로 쓴다"<sup>39)</sup>고 하였다. 자원해석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 자료만 보면 늦어도 顏之推(531-602)의 생몰 이전부터 '亘'으로 썼다.

### 3.2.3 분화자 '恒'의 생성

금문에서는 갑골문의 통행체 '亘'에 부건 '心'을 덧붙여 '𠄎', '𠄎'로 쓰기 시작하였다. 즉, '𠄎'보다는 心이 첨가된 '𠄎'이 통행체이었다. 금문 '𠄎', '𠄎'을 隸定하면 '𠄎'<sup>40)</sup>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갑골문 '亘'의 경우 '亘'보다는 '亘'으로 쓰듯이 금문 역시 오른쪽 부건 '月'을 옆으로 비스듬히 뒤틀어서 '亘'으로 썼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자형 '恒'은 '恒'의 訛體이다.

현존의 자료만 보면 금문단계에서는 갑골문 '亘(亘)'보다는 '亘'을 보편적 자체로 사용하였다. 이는 소전단계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허신의 《說文》에 '恒'은 독립된 자부로 설정되었지만 '亘(亘)'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亘(亘)'이 보편적 자체의 지위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sup>41)</sup> 허신의 《說文》에 '亘

(亘)'은 '樞'의 고문(𠄎)으로만 제시되어 있는데, 실은 樞, 恆, 夏, 亘(亘)이 繁簡의 차이만 있지 독음도 뜻도 같은 同字이다.<sup>42)</sup> '亘(亘)'의 月이 舟로 와변된 것에 대해 왕국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옛날 '月'을 따른 글자들 가운데 후에 와변 되어 '舟'를 따르기도 하였다. 은허 복사 가운데 아침저녁이라고 할 때의 '朝'를 '𠄎'로 썼다.(後·下·3) 글자의 구성은 日과 月을 풀(艸) 사이에 배치하였는데, 莫자가 日을 풀(艸) 사이에 배치해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원리가 같다. 그런데 전서에서 '輻'로 써, '月'을 따르지 않고 '舟'를 따랐다. 이런 예를 볼 것 같으면 夏는 본래 당연히 '𠄎'으로 썼다. 翳林에 '𠄎'자가 나온다. 心과 𠄎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篆文에서 月을 따르지 않고 '𠄎'을 따른 恒(恒)과 동자이다. 곧, '𠄎'는 '恒'의 초문이다. 이로써 볼 것 같으면 夏와 𠄎은 같은 자임을 알 수 있다.<sup>43)</sup>

夏는 갑골문의 '𠄎'과 同字이고 본래 부건이 '月'이며, 고문자 중에는 부건 '月'을 '舟'로 바꿔 쓴 예가 종종 보이기 때문에, '從舟'한 '夏, 恆'은 '亘'의 訛變體라는 것이다.<sup>44)</sup> 이처럼 자형이 와변 되고 상고시대 전적 중에서 '亘(亘)'의 본의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허신은 '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恒(𠄎)은 장구하다이다. 心과 舟가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두 構件은 그의 사이에 배치하였다. 마음의 배로 먼 곳을 왕복하기 때문에 변치 않고 장구할 수 있는 것이다. 夏는 恒의 고문으로 舟를 따르지 않고 月을 따랐다. 시경에 이르기를 '상현달처럼 커진다.'고 하였다. 반절은 胡登切(홍)이다.<sup>45)</sup>

아니었다. 단, 예서 단계에 오면 '亘(亘)'은 절적되었다가 위진 시대 이후에 다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魏晉시대 이전의 예서에서 '亘(亘)'을 찾아 볼 수 없다.

42) 《康熙字典》에 '樞'의 정체는 '𠄎'이라고 하였다.

43) 《觀堂集林》, <先公先王考> (卷9): "秦古從月之字, 後或變而從舟. 殷虛卜辭朝莫之朝作𠄎(後·下·3) 從日月在艸間, 與莫字從日在艸間同意. 而篆文作輻, 不從月而從舟, 以此例之, 夏本當作𠄎. 翳林有𠄎字, 從心從𠄎, 與篆文之恆從通者同, 卽恆之初字, 可知夏𠄎一字"

44)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2920쪽: "왕국유의 '恒'의 해석이 옳다. (설문) '木'부 '樞'의 고문을 亘으로 쓴다고 하였는데, 실은 이는 마땅히 恒의 고문이다.(王國維釋 '恒'是對的. 木部樞之古文作亘, 實當爲恒之古文.)"라고 하였다.

45) 《說文·二部》: "恒(𠄎), 常也. 從心從舟, 在二之間, 上下. 心以舟施恒也. 夏, 古文恒, 從月, 詩曰, 如月之恒. 胡登切." 《段玉裁注》는 "常은 마땅히 長으로 해석해야한다. 옛날에는

<檢字表>에도 '亘'을 '亘'로 쓴 예가 보인다.

37) 《玉篇》에는 '亘'와 같은 자형이 보이지 않다가 《字彙》에 이르러 보인다.

38) 《群經正字》: "此橫樞字, 今文從古而又省作亘"

39) 《顏氏家訓·書證》: "彌𠄎字從二間舟, 今之隸書轉舟爲日"

40) 恒이 정체이다. 《正字通·心部》에 "恒은 恒의 속체이다.(恒, 俗恒字)"라고 하였다.

41) 金文과 小篆단계에서 '恒'이 보편적인 자체가 되었다고 하여 '亘(亘)'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亘'은 根詞인 '亘(亘)'이 갑골문과 금문에서 인명, 지명 등으로 쓰여 그 본의를 명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허신은 자형이 와변된 소전체를 보고 문자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의과악에 실패하였다. '亘'의 본의가 '장구하다'라고도 하고, 고문으로 제시한 '𠄎'에 부건 '月'이 있음을 의식하고 '달이 차오르다'<sup>46)</sup>로 釋讀 하였는데 이는 본의를 모른다는 것을 반증한다. 보통 《說文》은 본의과악이 힘들 때 두 개 이상의 본의를 제시한다.

소전단계에서는 금문을 그대로 계승하였는데, 금문 𠄎, 𠄏 등의 좌변 부건 '月'을 '舟'로 와변 시켜 𠄎로 썼다. 이는 '𠄎' 혹은 '𠄏'로 隸定할 수 있는데, 현재는 왼쪽 부건 '亘(亘)'이 '亘'으로 와변 됐기 때문에 '恒'으로 쓴다. 亘이 정체이고, 恒이 이체이다.<sup>47)</sup>

예서단계에서는 亘을 ① 𠄎, ② 𠄏, ③ 𠄐, ④ 𠄑으로 썼다.<sup>48)</sup> ①-④는 構件과 結구에 차이가 있다. 우선 ①, ②, ③은 상하결구, ④는 좌우결구이다. 構件은 ①, ②, ③, ④ 모두 왼쪽 構件은 心이지만 오른쪽 構件은 ①가 月, ②, ③가 舟, ④가 '亘'으로 각각 다르다. 예서단계에서는 '亘(亘)'로 獨用한 예를 거의 찾을 수 없다. 금문단계부터 쓰기 시작한 '亘(亘)'만 보인다.<sup>49)</sup>

長久라는 뜻을 나타낼 때 만 長으로 썼다. 요원한 곳을 왕복하되 마음을 배로삼아 가기 때문에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는다.(常當作長, 古長久字祇作長. 謂往復遙遠, 而心以舟運旋, 歷久不變)라고 하였다.(段玉裁, 上海古籍出版社, 1981, 10쪽)

- 46) 《詩·小雅·鹿鳴之什·天保》: "당신은 달이 점점 차오르는 것 같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 같다.(如月之恒, 如日之升)"의 모형의 傳에 "亘은 상현달이 차오르는 것이다. 이는 周왕실이 하늘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말한다.(亘弦升出也 言俱進也)"(阮元 校刻, 《毛詩正義》(《十三經注疏》), 中華書局, 1980, 9, 제1판, 412쪽)라고 하였다.
- 47) 예서단계에서 舟는 構件으로 쓰일 때 종종 '月'의 형태로 연변 되었기 때문에 亘의 부건이 '月'이던 '舟'이던 상관없이 亘로 예정해야 한다. 최소한 기원전 200년경에 쓰여진 《睡虎地秦簡文字》 중 '前, 勝, 僦' 등의 構件 '舟'와(張守中 撰集, 《睡虎地秦簡文字編》, 文物出版社, 1994, 2. 참조)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후 30년까지 쓰여진 《居延新簡文字》 중 '般, 服, 船, 僦' 등은 이미 構件 舟를 '月'로 썼다. (韓延錫, <(附錄) 字形表>, 《居延新簡文字研究》(博士學位論文 北京師範大學), 1997, 5. 참조)
- 48) 恒이 '亘'의 이체라는 것은 《說文解字》의 글자배치를 봐도 알 수 있다. '恒'을 '二'에 배치하였는데, '心'부 글자라면 '二'부에 배치할 수 없다. 외형상 '心'부 글자인데 '二'부에 배치했다는 것은 허신이 한자를 정리할 당시만 해도 恒은 '二'부에 속한 '亘'의 뜻으로 썼음이 확실하다.
- 49) 亘은 금문단계에서부터 분화자 亘이 통행되면서 그 용례를 찾기가 어렵다. 소전단계에서도 樞의 고문으로만 소개되었고, 《玉篇》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唐代이전까

### 4. 結語

현재의 해서체 자형 '亘'은 자음 '선' 자의 '돌다'의 갑골문 '𠄎'과 자음 '궁' 자의 '半月(상현달)'의 갑골문 '𠄎'가 演變된 異字同形的 譌變體이다. 이들은 연변과정 중에 각각 분화자 '回'와 '恒'를 과생시켰다. 그 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부	자체	갑골문	금문	소전	예서	해서	와체
回	선	𠄎 𠄏	𠄎 𠄏 𠄐	𠄎 𠄏	𠄎 𠄏 𠄐	回	回
	회		回	回	回	回	回
亘	궁	𠄎 𠄏	𠄎	𠄎	不見	亘	亘
	항		𠄎 𠄏	𠄎 𠄏	𠄎 𠄏 恒	恒	恒

亘(亘)은 甲骨文 𠄎, 금문 𠄎, 소전 𠄎, 해서 亘 등으로 연변 되었고, 소전까지의 隸定을 亘, 亘, 亘으로 다르게 하기도 한다. 또, 明, 清代 이후 자서 편찬자들은 亘의 부건 '月'을 옆으로 누여 '亘'로 쓰기도 하고, 부건 '舟'의 미세한 필획차이, 예컨대 중앙의 '丿'의 길이, 斜線의 방향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자부로 인식하여 '亘, 亘, 亘' 등을 독립적인 자부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각 자서에 등장하는 자형 亘, 亘, 亘, 亘, 亘, 亘, 亘, 亘 등은 실은 모두 同字 異寫字들이다. 아직도 일부 자서들은 동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들 사이의 차이를 설명

지는 亘이 통행체이었던 듯하다.

하려고 노력하여 자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준다. 예컨대 《漢語大字典》은 자부 '亘'자조에 亘과 亘의 자음과 자의를 함께 제시하고도, 자원을 설명하는 古, 今文字形은 '亘'의 자형만 제시하였다. 또, 同字인 '𠄎'과 '𠄎'을 따로 자두로 설정하고 '𠄎'은 자음 '궁(居鄧切)' 자의 '다하다'를 제시하였다. 이는 同字임에도 서로 다른 자부로 제시한 '亘'자조의 자음, 자의와 겹친다. '𠄎' 역시 자음을 '궁(居鄧切)' 자의를 '𠄎'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또한 '亘'자조의 그것과 중복된다.

한편 𠄎은 금문 단계에서 부건 心이 첨가된 분화자 𠄎이 출현하였으며, 이 분화자는 소전단계에서 부건 '月'을 '舟'로 와변시켜 𠄎으로 쓰고, 예서 단계에서는 從舟, 從月, 從日의 𠄎, 𠄎, 𠄎가 통행되었다. 현재의 통행체 '亘'은 예서의 𠄎을 따른 것이다. 허신 이후 청대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갑골문 𠄎의 와변체 𠄎의 부건을 '舟'라고 믿었다. 하지만 갑골문(𠄎), 금문(𠄎), 恒의 고문(𠄎), 楚簡(𠄎, 𠄎) 등을 참고해보면 중앙의 부건은 '舟'가 아닌 '月'이다.

𠄎은 소전 단계에서 亘과 回(回의 고문)로 분화되어 예서 단계에서는 완전히 서로 다른 자부 亘과 回로 독립하였다. 한편 亘은 최소 漢代부터 부건 '回'가 日로 와변되어 '亘'으로 썼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자부 亘과 亘이 선후를 달리 하여 '亘'으로 와변 되었기 때문에 1900년대 이후, 대략 1950년대 전후 출간된 자서들은 異字同形的 '亘'을 하나의 자부로 인식하여 자음, 자의, 자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자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학적인 근거도 없다. 한편 이러한 자서에 의해 식자를 한 우리의 컴퓨터 한자 사용에도 많은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 參考文獻 >

顧野王(梁), 《大廣益會玉篇》, 中華書局, 1987, 7, 제1판.  
廣東, 廣西, 湖南, 河南辭源修訂組·商務印書館編輯部編, 《辭源》(1-4合集)(修訂本), 商務印書館(1988, 7, 제1판), 1991, 12, 복경 4차 인쇄.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10.  
梅膺祚 撰, 《字彙·字彙補》, 上海辭書出版社, 1991, 6.  
文化圖書公司, 《康熙字典》, 臺灣, 中華民國, 1975, 1, 5.  
方述鑫 等編, 《甲骨金文字典》, 巴蜀書社(成都), 1993, 11, 제1판.  
—— 等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成都), 1985, 8, 제1판.  
徐元誥·歐陽溥存, 《中華大字典》, 中華書局, 1915.  
徐中舒 主編,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5.  
楊樹達, 《積微居小學述林》, 科學出版社, 1954, 12.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85, 7, 1版. 1992, 3, 3차 인쇄.  
阮元 校刻(清), 《毛詩正義》(《十三經注疏》), 中華書局, 1980, 9, 제1판.  
王錫侯(清), 《字貫》(于王安, 孫豫仁 主編, 《字典彙編》(全30책), 國際文化出版公司, 1993, 12, 제1판).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 中華書局, 北京, 1996, 5, 제1판.  
張守中 撰集, 《睡虎地秦簡文字編》, 文物出版社, 1994, 2.  
—— 撰集, 《包山楚簡文字編》, 文物出版社, 1994, 2.  
張自烈(明), 《正字通》, 清 康熙刻本, 北京大學圖書館所藏.  
中國大詞典編纂處編, 《漢語詞典》(原名《國語大詞典》), 商務印書館(1937, 3 초판), 1957, 12, 중인 1판. 1991, 9, 10차 인쇄.  
冷玉龍·韋一心 等編, 《中華字海》, 中華書局, 中華友誼出版公司, 1994, 9, 1판.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考古學專刊乙種第14号), 中華書局(1965, 9, 제1판), 1992, 2, 4차 인쇄.  
中國社會科學院言語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2002年增補本), 商務印書館(1978, 12 제1판), 2002, 5, 修訂 제3판.  
趙平安, 《隸變研究》, 河北大學出版社, 1993, 6, 1판.  
陳建貢·徐敏 編, 《簡牘帛書字典》, 上海辭書出版社, 1991, 12, 1판.  
韓延錫, 《居延新簡文字研究》(博士學位論文 北京師範大學), 1997, 5.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編纂處 編纂,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86, 11 - 1993, 11).  
行 均 編, 《龍龕手鑒新編》, 中華書局, 1985, 5.  
許 慎, 《說文解字》, 中華書局(1963, 12, 제1版), 1992, 12차 인쇄.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漢語大字典》,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 11, 제1판.

<Abstract>

Both 𠄎 and 𠄏 had been developed into the current Haeseo font '亘'. They respectively had produced the variations '回' and '𠄏'. At least from the time of Han Dynasty 回 has been used as '亘' because the middle part 回 was mistakenly changed into 日. The unconscious shift into the form 舟 of the central part in 𠄏, which had begun at the step "sojun", caused the type of 𠄏. From this font, other variations had been produced such as 𠄐, 𠄑, 𠄒, 𠄓, 𠄔, 𠄕, 𠄖, 𠄗, 𠄘, so that those forms was established into '亘'. The dictionaries published after the 1900s didn't recognize the fact that '亘' represents a lot of letters mentioned above. They thought the type as the one and only letter, which gave the dictionary users much confusion. This error must be amended since it lacks linguistic foundations and scholastic justifications. The Chinese characters stored in computers has also been giving much disorientations due to their reference to the dictionaries.

Key Words: wrongly-changed type 亘, variation 恒, font shift of 回, font shift of 𠄏, be changed wrongl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8.31	2009.9.17	2009.10.9	2009.10.12	2009.10.30